

The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Human Rights Perception on Sense of Community of Social Welfare Major: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이 사회복지 전공생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In Bong Son¹, Tae Hyeong Kim²

손인봉¹, 김태형²

¹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zarene University, Korea, gagson2@hanmail.net

²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sodoi2001@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Tae Hyeo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social welfare college students. For the analysis in the stud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For the analysis, a survey of social welfare students at B college in B reg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22, and 102 copies of the 110 data that responded were used. As a research result, First,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sense of community's level was found to increas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social welfare college student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mmunity consciousness. Third, it was analyzed that social responsibility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mmunity consciousness.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social welfare college students is influenced not only by individu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ut also by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human rights aware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we would like to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at the college level and suggestion for follow-up research to improve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Keywords: Sense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Social Work Students, Social Responsibility, Human Right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에서의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B 지역 B 대학 사회복지 전공생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응답한 110명의 자료 중 102부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남학생인 경우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 대학생의 인권인식 수준이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책임성이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Received: March 30, 2023; 1st Review Result: May 14, 2023; 2nd Review Result: June 10, 2023
Accepted: June 30, 2023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권인식 및 사회적 책임성과 같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대학차원의 실천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공동체 의식, 대학생, 사회복지 전공생,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1. 서론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매우 가파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대가족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개인이나 핵가족 중심의 개인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세대 간, 개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개념은 퇴색됐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미래 사회 발전의 불안 요소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1],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과의 연대감, 믿음으로 정의되는 공동체 의식은[2], 사회적 존재인 개인의 정서적 안녕 및 삶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1980년대 MacMillan과 Chavis가 제안한 커뮤니티 감각 이론에서 파생된 공동체 의식 모델에서 소개된 개념으로[2], 주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결속과 연관된 집단 의식 및 집단 구성원의 공통된 의식’[3] 또는 ‘함께 구조하고 함께 일하면서 겪어 온 집단 의식’[4]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단일한 개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로는 멤버십(Membership), 영향력(Influence), 욕구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공유된 감정적 연결(Shares emotional connection)의 4가지 하위 개념으로 설명된다. 먼저 멤버십은 어떤 집단이나 커뮤니티에 속하는 느낌 또는 정체성을 의미하며, 영향력은 개인이 의견을 내고 집단에 기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5].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일정한 집단에 속함에 따라 받게 되는 자원을 통해 얻게 되는 감정을 말하며, 공유된 감정적 연결은 구성원들과 공통된 시간, 역사,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감정적 유대감을 의미한다[6]. 특히 공동체 의식은 위의 4가지 구성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개념이 형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할 때 사람들은 특정 집단에 연결되어 있고 참여하며 헌신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7].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의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는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고 실제 개입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인식 수준 등이 매우 중요한 행동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성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자세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공동체 의식의 개념은 사회복지 전공생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전문가적 자질 또는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이슈들에는 동성애, 약물남용,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성과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실제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슈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은 사회복지 전공생들이 문화적 민감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8].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 역사, 언어 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어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인 사회복지 개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전공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선행연구들에서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으며,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9], 사회적 지원 체험과의 관계[10], 성차별 인식 간의 관계[11]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이 사회복지 전공생에게 매우 의미 있는 개념이라는 필요성을 중심으로 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기존의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 중 의미 있는 변수이면서 대학 교육 차원에서의 전공 교육,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등의 실질적 노력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성이란, 개인이 자기 행동과 결정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즉, 개인이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함으로써 타인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반면, 인권인식의 개념은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13]. 이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 성별, 종교 등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상호존중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상호존중에 대한 가치는 공동체 의식 수준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 수준이 높은 개인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책임성 및 인권인식과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 의식의 영향 요인을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지역 특성(참여, 문제 인식)을 설정한 연구[5], 생태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14],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가정, 학교 차원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15]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원의 변수와의 관계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변수인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에 초점을 두어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국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개인들이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더 높음을 밝히고 있으며[16], 세르비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 수준이 더 높고 인권 태도도 긍정적임을 보고하고 있다[17]. 이 외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성이 공동체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18]. 이에 위의 개념 및 실증적 검증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이 공동체 의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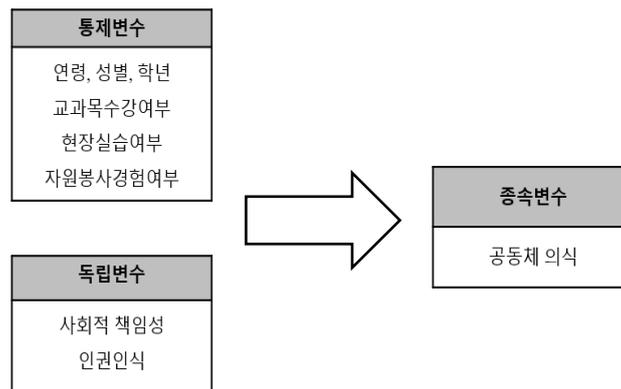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의 개념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공동체 의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전공생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주요 변수인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공동체 의식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주요 변수인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복지 전공생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 지역 4년제 B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문항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에게 연구 관련 설명을 제공한 후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무작위 표집을 활용하여 총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분석에 적합한 자료 102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공동체 의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된 변수는 공동체 의식이다. 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McMillan & Chavis(1986)가 개발한 척도[2]를 김경중과 김성수(1998)가 변안한 문항[3]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총 15문항 5점 척도로, 상호연관성, 자발성, 상호 의존성, 공동 목적, 경험 등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김경중과 김성수(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이었으며[1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4로 확인되었다.

2.3.2 사회적 책임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된 사회적 책임성 변수는 Conrad & Hedin(1985)이 개발한 문항[20]을 김진숙(2000)이 변안하여 사용한 척도[21]를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총 20문항 5점 척도로, 사회적 적극성, 조직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윤리적 책임성 등 4가지 하위요소로 책임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김진숙(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3으로 확인되었다.

2.3.3 인권인식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된 인권인식 변수는 국가인권위원회(2005)에서 개발한 '인권현안인식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총 30문항 5점 척도로, 인권현안인식과 관련된 인권개념, 차별금지, 인권침해예방, 인권옹호 등 5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22].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03으로 확인되었다.

2.3.4 통제 변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령, 학년, 성별, 교과목수강여부(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 계층 대상 관련 과목 수강 경험), 현장실습여부, 자원봉사경험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는 더미변수(성별: 여자=0, 남자=1, 학년: 1-2=0, 3-4학년=1, 교과목수강여부: 수강 한적 없음=0, 수강 한적 있음=1, 현장실습여부: 수행하지 않았음=0, 수행했음=1, 자원봉사경험: 없음=0, 있음=1)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있어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으로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들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자가 41명(40.2%), 여자가 61명(59.8%)으로 여학생 비율이 좀 더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21.80세로 확인되었다. 학년은 4학년 41명(40.2%), 3학년 22명(21.6%), 1학년 21명(20.6%), 2학년 18명(17.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소외계층 및 소수자 관련 과목 수강 여부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경험이 없는 것(93명, 91.2%)으로 답했으며, 현장실습 여부는 예 59명(57.8%), 아니오 43명(42.2%)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여부는 예 75명(73.5%), 아니오 27명(26.5%)으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Analysi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41	40.2
	여	61	59.8
나이(만)	M=21.80, SD=2.12		
학년	1학년	21	20.6
	2학년	18	17.6
	3학년	22	21.6
	4학년	41	40.2
교과목수강 여부	예	9	8.8
	아니오	93	91.2
현장실습여부	예	59	57.8
	아니오	43	42.2
자원봉사경험 여부	예	75	73.5
	아니오	27	26.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로는, 사회적 책임성은 최소값 2.44, 최대값 4.81, 평균 2.44로 보통 수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인식은 최소값 2.14, 최대값 4.36, 평균 3.29로 보통 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은 최소값 1.27, 최대값 4.93, 평균 3.28로 확인되었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인권인식과 공동체 의식은 보통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회적 책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사회적 책임성	2.44	.524	2.44	4.81	-.585	-.117
인권인식	3.29	.386	2.14	4.36	-.197	.820
공동체 의식	3.28	.675	1.27	4.93	-.318	-.111

3.2 측정변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성과 공동체 의식도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권인식과 공동체 의식은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수 상관관계분석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변수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성	1		
인권인식	.351**	1	
공동체 의식	.608**	.363**	1

3.3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ble Inflation Factor)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의 값이 1~3 사이의 값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연구모형분석

[Table 4] Analysis of Research Model

변수	표준화계수		연구모형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통제 변수	연령	.061	.479	.633	.368	2.720
	학년	-.123	-.957	.341	.358	2.791
	성별	.196	2.340*	.021	.849	1.178
	교과목수강 여부	-.030	-.365	.716	.855	1.170
	현장실습 여부	-.060	.570	.570	.531	1.883
	자원봉사경험 여부	.019	.177	.860	.514	1.944
독립 변수	사회적 책임성	.225	2.490**	.015	.727	1.376
	인권인식	.537	6.205***	.000	.794	1.259
R2			.446			
Adj R2			.398			
F			9.358***			

*p<.05, ** p< .01, ***p<.001

연구모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확인해 보면, 통제 변수 중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beta=.196, p<.05$)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복지 전공생 중 남자 학생인 경우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된 통제변수인 교과목 수강, 실습, 자원봉사 경험 여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변수들은 기존연구들을 통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후속 연구에서 관련 변수에 대한 측정 형태, 방법 등의 수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설정된 사회적 책임성($\beta=.225, p<.01$)과 인권인식($\beta=.537, p<.001$)은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책임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동체 의식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며, 인권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동체 의식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주요 변수로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B 지역 4년제 B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102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성은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적 책임성의 수준이 증가하면 할수록 공동체 의식의 수준도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12][16][23]. 이러한 기존 및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면 공동체 의식의 수준도 함께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의 발굴이 대학의 우선 과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책임성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학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생들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미국의 일부 대학들에서 운영하는 공공 및 정치 참여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 제안하는 공공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뉴욕대 등에서는 지역사회의 인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조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4]. 이처럼 학과 또는 학교와 비영리조직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성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대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연구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학점이나 졸업 인정과 같은 공식적인 활동과 특정 목적 달성이 아닌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의도에서 참여하는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한 효과를 세분화하여 그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인권인식 수준은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권인식 수준이 증가하면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13][14][25]. 인권인식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등의 이슈와 맞물려 사회복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인권인식 수준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라 하겠다. 이에 인권인식 향상을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으로 우선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와 인권과 연계된 교과목을 필수 교양 과정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인권인식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Columbia University의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Difference’[26], Stanford University의 ‘Stanford Center for Comparative Studies in Race and Ethnicity’[27] 등과 같이 대학 본부 차원에서 인권 또는 인권 및 정의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생들의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공동체 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적 자본, 환경 체계 등 보다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 대상인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에 B 지역 B 대학 일부 대학생에 한정되어 자료가 조사되었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한계를 가진다. 셋째, 공동체 의식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은 종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전공생으로서 경험이 쌓이면서 그 수준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다양할 수 있기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성별이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표본의 한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 의식과의 인과적 개연성에서 나타난 결과인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B. R. You, Generational Conflicts and the Cultural Living in regard to Fulfilling Civility, *Philosophy·Thought·Culture*, (2015), No.19, pp.124-178.
DOI: <https://doi.org/10.33639/ptc.2015..19.005>
- [2] D. W. MacMillan, 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86), Vol.14, No.1, pp.6-23.
- [3] K. M. Im, College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s to College-Related Characteristics-Focused on Pyeongtaek University,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16), Vol.23, No.2, pp.157-167.
- [4] R. A. Nisbet, *Community and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5] J. M. Kwon, T. Y. Park, A study Departments on the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and Rural: Focused Dalseo-gu in Daegu and Uiseong-gun in Gyeongbuk,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014), No.51, pp.127-154.
DOI: <https://doi.org/10.15300/jcw.2014.51.4.127>
- [6] D. P. Cha, Collegiate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s to College-related Characteristics, Vol.28, No.1, pp.169-183.
- [7] J. S. Lim, G. E. Kim, Factors Affecting Sense of Community: Comparison Different Age Group, *The journal of*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9), Vol.10, No.3, pp.1773-1788.
DOI: <https://doi.org/10.22143/HSS21.10.3.129>
- [8] E. S. Bae, H. K. Park, The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the Degree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Urban-Rural Complex Area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 Vol.20, No.9, pp.615-627.
- [9] H. N. Le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The Mediation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20), Vol.11, No.1, pp.979-993.
- [10] G. R. Kim, H. W.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Experience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2020), Vol.58, pp.173-199.
- [11] T. H. Kim, Gender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in Proximal Contexts on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Community among Korean Adolescent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2017), Vol.49, No.2, pp.1-25.
- [12] J. F. Dovidio, J. A. Piliavian, D. A. Schroeder, L. A. Penner,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A Multi-level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7, pp.341-375.
- [13] S. Kitayama, H. R. Markus,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Social Justice Research*, Vol.15, No.3, pp.259-281.
- [14] Y. S. Kim, C. S. Shin, S. Y. Park, S. N. Yang, S. Y. Park, Effects of Ecological System Factors among Children on Sense of Community Focusing on Latchkey Children, (2017), Vol.24, No.9, pp.363-386.
- [15] S. K. Yoon, Y. H. Lee, S. H. Im, E. Y. Kim, A Factor Analysis of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8), Vol.19, No.2, pp.353-374.
DOI: <https://doi.org/10.15753/aje.2018.06.19.2.353>
- [16] L. R. Goulet, A. Richer, E. Brunell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Identify, and Sense of Communit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017), Vol.49, No.2, pp.99-108.
- [17] S. Bajic, G. Cirovic, The Eff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Human Rights Education Review*, (2017), Vol.1, No.2, pp.7-23.
- [18] Y. Liu, X. Guo,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sponsibility and Sense of Community: A Mediated Analysis, *Advances in Psychology*, (2020), Vol.10, No.4, pp.443-451.
- [19] K. J. Kim, S. S. Kim,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Korea,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1998), Vol.23, No.2, pp.211-232.
- [20] D. Conard, D. Hedin, Community as victim and ally in the struggle for downtown, *Sociological Inquiry*, (1985), Vol.55, No.4, pp.391-410.
- [21] J. S. Kim, The Impact of Youth Service Learning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Myongj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0)
- [22] <https://www.humanrights.go.kr/>, Aug 24 (2022)
- [23] R. A. Reynolds, J. C. Turner, S. A. Haslam, When are we better together? The role of task interdependence and social identify in motivating group membership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11), Vol.100, No.5, pp.802-808.
- [24] <https://chrgj.org/documents/>, Apr 22 (2023)
- [25] Y. S. Cho, S. Y. Han,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adolesc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social withdrawal, *Human Ecology Research*, (2019), Vol.57, No.2, pp.243-255.
- [26] <https://www.socialdifference.columbia.edu>, Apr 22 (2023)
- [27] <https://ccsre.stanford.edu>, Apr 22 (2023)